

P.I.R.A.M

31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문 문학)

- ① 애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명령형 : '~해라'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허용 가능합니다. / 주제 의식 부각 : 시의 모든 표현은 주제를 부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 의식 부각'은 모든 시에서 허용 가능합니다.
* 이렇게 '모든 시에서 허용 가능'한 선지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나올 때마다 표시해 드릴 테니 모두 정리해 두세요.
- ③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시골의 느낌이 나면 허용 가능합니다. (ex. 흙 냄새..)
- ④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행의 길이가 한 글자라도 변하면 허용 가능합니다.
-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 동일 : 토씨 하나까지 똑같아야 합니다. c) 유사 : 대~충 비슷하면 됩니다. / 유기적 결합 :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가 있으면 두 시구를 연관 지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유기적이죠? 당연히 허용 가능합니다. (어휘적 측면으로 생각합시다)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문 문학)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표현, '나'가 관찰자가 아닌 주인공)
- ②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설정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작중 상황과 사건을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다.
→ 전지적 시점이 되려면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 및 심리, 그리고 그 근거까지 썩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 관찰자는 심리와 그 근거를 모르고 있겠죠? 시점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합시다.
- ④ 서술자가 회상을 통해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고 있다.
→ 회상 : 과거 이야기가 있으면 허용됩니다.
- ⑤ 서술자는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시켜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입체감을 부여한다는 건 여러 사건이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면 과거라는 층과 현재라는 층이 입체적으로 겹쳐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과거, 현재'의 교차 외에도 한 사건을 여러 사람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모습 등이 나오면 '입체감 부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개념어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허용되는 범위를 납득하셔야 해요.

소설의 시점

- 1인칭 { 주인공 : 서술자가 주인공. '나'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소설이 '나'의 심리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
관찰자 : 서술자가 주변 인물. '나'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나'가 심리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인물을 관찰하기만 함
- 3인칭 { 관찰자 :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 관찰만 할 수 있어서 인물들의 심리 상태, 그 이유 등을 잘 알지 못함.
전지적 :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 전지전능하므로 모든 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이유 등을 알고 있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포인트는 서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심리 상태와 그 이유 등을 알고 있는지에요. 관찰자는 다른 인물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더 어려운 개념은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수능 수준에선 여기까지만!

38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운문 문학)

- ① 감탄과 반성의 어조를 교차하여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상황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나서 다양한 예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③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상응시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수미상응(수미상관)과 다름. 수미상응은 '비슷한 내용'이면 됩니다. → 31번 문제의 '유사'와 비슷한 개념. 반면 이 선지의 '동일한 내용으로 상응'은 토씨 하나까지 '동일'해야 합니다.
-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면서 심리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근경에서 원경 : '화자의 시점'에서 가까운 곳 → 먼 곳 (ex. 풀이 이쁘다. 이제 보니 저 뒤의 산도 참 이쁘네.) / 심리의 변화 :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비관적이었는데 희망이 생겼다가, 슬펐는데 극복했다거나 등등
- ⑤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해 가며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문 문학)

- ① 내적 독백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독자의 입장에서 흥미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약간 넓은 범위로 보셔야 해요. 사건이 클라이막스로 간다든지,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과거로 돌아간다든지하는 다양한 예시들이 있겠죠?
* 물론 이 선지에서는 '극적 긴장감'이 허용되더라도 '내적 독백을 통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적 독백'이 제시되어 있더라도, 그 내적 독백을 '통해' 극적 긴장감이 고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선지에서 묻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따지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재 전반에서 계속해서 강조할 내용이에요.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 ③ 묘사의 방식을 통해 장면이 전환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개입하여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서술자의 개입 : 인물의 대사나 생각이 아닌 '서술자'의 생각. 산문문학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 압축적 제시 : 어떤 사건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는 선지들, 그리고 실지 않은 문제들은 어휘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개념어들을 이용한 것들입니다. 스스로 해결해 보시고, 헛갈리는 부분만 질문해 주세요.

어제 배웠던 선지 판단의 대원칙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능 문학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운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운문문학 문제를 대하는 ‘실전적’인 태도를 세워보도록 합시다.

운문문학 해결하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실전’에 맞춘 이야기입니다. 너무 과하게 실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뒤에서 꼼꼼하게 채워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주세요. 왜 실전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체화하시면, ‘문학이 어려워요.’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한 번 가봅시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문학의 핵심은 결국 ‘허용 가능성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배제한 채, 지문 속 ‘객관적인 근거’만을 바탕으로 선지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잘 배웠는데, 주어진 지문은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독서 지문을 읽듯이,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며 꼼꼼하게 읽으면 될까요?

오늘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보려 합니다. 어제 우리는 ‘수능 문학’이 결국 ‘문학’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을 묻는 시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학 지문을 읽어내는 것도, ‘독해력’을 활용한다는 태도만 갖춰주시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든 소설이든 어쨌든 하나의 ‘글’이므로, 담백하게 읽어내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글’이라면, 결국 하나의 ‘주제’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시처럼 짧은 글에서 주제가 여러 가지로 확확 바뀐다면, 그 시를 ‘좋은 글’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좋은 글’이 아니라면, 수능에 출제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의 ‘주제’가 무엇인지 ‘독해’하며 읽는 태도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어제 배운 것처럼 선지에서 묻는 부분을 읽고 그 맥락을 ‘독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초로 시를 독해할 때는 그 시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주목하며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의 주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일단 ‘시’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시다.

**문학의 한 장르.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흥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니라, 네이버 지식백과라는 나름 권위 있는(아마 네이버가 권위 있는 단체의 정의를 참고했겠죠.) 곳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대충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쉽게 풀어 봅시다. ‘자연이나 인생’은 어떤 걸 뜻할까요?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혹은 화자가 놓인 시·공간적 배경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화자가 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감흥과 사상’은 어떤 걸 뜻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화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즉 화자가 처한 상황 속 ‘반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위의 정의를 쉽게 표현했을 때 ‘시’란 곧 ‘화자의 상황과 반응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주제’ 역시 ‘화자의 상황과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비문학 글들이 ‘주제’를 ‘명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면, ‘시’는 ‘주제’를 ‘함축적·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결국 “수능 문학 문제에 출제된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독해력’을 물어보는 시험이니 ‘주제’ 위주로 읽어내자”라는 것이 되고, 이 때의 ‘주제’는 곧 ‘화자의 상황과 반응’을 의미하니 “화자의 상황과 반응 위주로 읽어 내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꼼꼼하게 읽으면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제 배웠듯이 어차피 자세한 ‘해석’은 선지에서 해 줄 것이고, 우리는 그 해석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먼저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과 반응’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말 이것 꼭 찾고, 맞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반응’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처럼 ‘주제’ 위주로 ‘독해력’을 발휘하며 읽어달라는 거예요. 굳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구요. 이렇게 ‘전반적인 주제’에만 집중하며 읽으면 필연적으로 지문 독해 시간도 짧아지게 될 겁니다. 시를 오래 읽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물론 이렇게 ‘주제’를 잡는 것조차 어려운 추상적인 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시들의 경우, 아무리 객관적으로 읽으려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잡아내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보기> 확인의 위력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로 추상적인 작품이라면, 높은 확률로 <보기> 속에서 주제를 제시하고 있을 겁니다. 이 경우 <보기>의 내용을 기반으로 ‘주제’ 파악에 도움을 받고 지문 독해와 선지 판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 번 정리해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정리해서, 운문문학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기> 독해 : 주제or내용 파악
- 2) 지문 독해 : 화자의 ‘상황’과 ‘반응’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독해
- 3) 선지 독해 : 선지에서 묻는 부분과 그 맥락을 정확히 ‘독해’
- 4) 허용 가능성 평가 : 위의 과정에서 얻은 ‘근거’들이 해당 선지를 ‘허용’하기에 충분한지 ‘평가’

어렵지 않죠? 여기에 ‘공통점 문제’는 ‘거시적인 선지’ 위주로 체크한다는 내용 정도 추가하시면 더 훌륭하겠습니다. 시의 ‘주제’는 최근 평가원이 답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 ‘주제’를 파악하며 독해한다는 기본 태도를 꼭 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p.53)

“도대체 박준은 어째서 꼭 불을 밝혀 놓아야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깃불을 보고는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까?”

“중요한 걸 물으시는군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김 박사는 그동안 나에게서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이번에는 박준의 버릇에 대해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글쎄,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야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다른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병증의 하나임엔 틀림없지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관찰로는 영 그 원인을 분석해 낼 재간이 없었던 말입니다. 한데 어젯밤 발작을 보고는 비로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둠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전깃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시킨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전깃불이었던 말씀입니다. 환자엔 그 어둠이라는 것이 늘 전깃불을 연상시키는 공포의 촉매물이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박준이 무엇 때문에 그 전깃불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겠군요. 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최초의 갈등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전깃불의 비밀이야말로 박준 씨의 치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지요.”

“하지만 어젯밤 박준이 전깃불을 보고 놀랐던 것만으론 그가 어째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깃불의 공포라는 것이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직 설명하실 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셈이지요.”

“역시 그의 소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필시 박준의 소설들과 전깃불 사이엔 뭔가 썩 깊은 상관성이 있는 듯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은근히 김 박사를 권해 보았다. 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역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별로 기분 좋은 방법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젠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종략)

—이 달의 화제작, 화제 작가.

신문지는 벌써 이태쯤 전에 발간된 어떤 주간지의 한 조각이었는데, 거기엔 우선 그런 제호가 크게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제호 한쪽으로 그 달에 발표된 박준의 소설이 한 편 몇몇 평론가들로부터 합평되어 있고, 다른 한쪽엔 그 달의 화제 작가로서 박준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신문지 조각을 못에서 빼어 냈다. 그러나 금세 실망이 되고 말았다. 기사는 별로 읽을 만한 곳이 남아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사가 다른 조각으로 찢어져 나가 버리고 없었다. 찢어져 나간 조각들은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미 휴지로 사용이 되고 만 모양이었다. 남아 있는 것은 그의 인터뷰 기사 중의 몇 마디뿐이었다. 나는 그것이나마 찢어지다 남은 데서부터 기사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당신은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의 뜻을 아직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설명을 하겠다…….

아마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박준은 이야기를 꽤 길게 계속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빈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 들어와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젖혔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깃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전깃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A]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모른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깃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요즘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깃불 앞에서 일방

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한 작가의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박준의 말은 거기서 일단 끝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신문이 찢어져 나가 버린 것도 거기서부터였다.

-이청준, 「소문의 벽」-

0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 박사’는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는다.
- ② ‘김 박사’의 말을 들은 ‘나’는 그의 치료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 ③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일이 있음을 ‘김 박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 ④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인 것은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 ⑤ 신문지 조각을 읽은 ‘나’는 궁금해 하는 사실과 기사 내용이 거리가 있어서 실망한다.

05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한다.
- ②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 ③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 ④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
- ⑤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역사적인 사건의 전모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0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정신적 외상(trauma)은 충격적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에 잠재되었다가 정신적 병증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들추어 ‘말문’을 트게 하는 것은 정신적 병증의 치유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대해 ‘말문 트기’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개인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 병증을 치유해 주는 개인적·사회적 말문 트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① ‘전깃불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박준’은, 일방적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군.
- ② ‘전깃불의 공포’와 ‘소설 작업’의 관계에 주목해 보면, 소설 쓰기를 통한 ‘박준’의 ‘자기 진술’은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 트기에 상응하는 것이겠군.
- ③ ‘자기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박준’의 고백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진술’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외상이 환기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유년의 ‘기분 나쁜 기억’이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관련되었다는 설정을 통해, ‘박준’의 정신적 외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 ⑤ 정신적 외상의 최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 트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

(해설 p.58)

(가)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이 말삼 잇디 말고 배우고야 마로리이다

<제1수>

아바님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부모(父母)골 아니시면 내 몸이 업실랴다
이 덕(德)을 갚히려 하니 하늘 가이 업스랴다

<제2수>

종과 주인과를 뉘라셔 삼기신고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묻져 아니
한 마암애 두 뜻 업시 속이지나 마옵사이다

<제3수>

지아비 발 갈라 간 데 밥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되 눈썹에 마초이다
진실로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제4수>

형님 자신 젖을 내 조처 먹나이다
어와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형제(兄弟)가 불화(不和)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제5수>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데 불공(不恭)하면 어디가 다를고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

<제6수>

-주세붕, 「오륜가」-

(나)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댔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원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

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버이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노라.

-이곡, 「차마설」-

07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 ② 상반된 세계관이 대구의 형식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③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담고 있다.
- ④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권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이상향에 대한 의식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진술하고 있다.

0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관념적 덕목을 열거하여 각각이 지닌 모순을 밝히고 있다.
- ② (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옹호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는 개인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 ④ (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형상화하여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경이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고 있다.

09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교훈적 내용의 시조에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특징적인 표현 전략이 있다. 우선 윤리적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대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비유나 상징, 유추, 다른 인물이나 사물과의 대비 등을 통해 화자가 개인 윤리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윤리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 ① <제3수>에서는 ‘벌과 개미’의 생태로부터 윤리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
- ② <제4수>에서는 화자로 내세운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을 통해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③ <제5수>에서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형님’과 ‘아우’가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④ <제5수>의 ‘개돼지’는 <제1수>의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윤리적 주체와 대비되고 있다.
- ⑤ <제6수>에서 ‘부모’와 ‘형’은, <제2수>의 ‘부모’와 <제5수>의 ‘형님’과는 달리, ‘늙은이’와 ‘어른’에 빗대어져 쓰임으로써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0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리는 경우 ‘전전궁궁’하다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다.
- ② ‘나’는 ‘준마’를 빌려 탈 때의 ‘의기양양’한 감정이 그것을 소유할 때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천한 사람들을 ‘미혹’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 빌린 것임을 돌아보는 ‘임금’의 모습을 ‘독부’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나’는 ‘맹자’의 ‘이 말’에서,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있다.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11 [21~25]

(해설 p.66)

(가)

동녘 두던 밧긔 크나큰 너븐 들히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훈 빗치 되야 잇다
중양이 거의로다 내노리 헝자스라
블근 게 여물고 눌은 둥기 술저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술소냐
전가(田家) 흥미는 날로 기퍼 가노매라
살여흘 긴 몰래에 밤불이 불가시니
㉠ 게 잡는 아히들이 그물을 훑터 잇고
호두포* 엔 구빅에 아적물이 미러오니
㉡ 돛든비 애내성(欸乃聲)*이 고기 쫓는 당시로다
경(景)도 도쿄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라

[A]

(중략)

어와 이 청경(淸景) 갑시 이실 거시련들
적막히 다든 문애 내 분으로 드려오라
사조(私照)* 업다 호미 거즈말 아니로다
㉢ 모재(茅齋)*에 빗췌 빗치 옥루(玉樓)라 다룰소냐
청준(淸樽)을 밧째 열고 큰 잔의 7득 브어
㉣ 죽엽(竹葉) 7는 술 돌빋 조차 거후로니
표연훈 일흥(逸興)이 저기면 놀리로다
이적선(李適仙) 이러헝야 들을 보고 밋치닷다
춘하추동에 정물이 아름답고
주야조모(晝夜朝暮)애 완상이 새로오니
㉤ 몸이 한가하나 귀 눈은 겨를 업다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 기니
세상 공명은 계륜이나 다룰소냐
㉥ 강호 어조(魚鳥)애 새 밍세 겁퍼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섯기엿다
초당연월(草堂煙月)의 시름업시 누워 이셔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장일취(長日醉)를 원(願)헝노라
이 몸이 이러구롬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호두포: 예산현의 무한천 하류.

* 애내성: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

* 사조: 사사roi 비춤.

* 모재: 띠로 지붕을 이어 지은 집.

* 옥당금마: 관직 생활.

* 몽혼: 꿈.

(나)

어촌(漁村)은 나의 벗 공백공의 자호(自號)다. 백공은 나와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 대과에 급제하고 좋은 벼슬에 올라, 갓끈을 나부끼고 인끈을 두르고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니,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하였으나, 담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 「어부사」를 노래한다.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다. 중자가 상송(商頌)을 노래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하였기 때문에 소리의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뜻은 어부(漁父)에 있다.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가 주 문왕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 엄자룡은 현인이니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 ㉠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하며 어떤 때는 낚싯대를 잡고, ㉡ 외로운 배를 노 저어 조류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 두고,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그 가운데를 흘러간다. ㉢ 구운 고기와 신선한 생선회로 술잔을 들어 주고받다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에는 배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불며, 돛대를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 흰 물결을 일으키고 맑은 빛을 헤치면, 멀고 멀어서 마치 성사*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 같다.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리면, 도롱이와 삿갓을 걸치고 그물을 건어 올리면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의 물고기가 제멋대로 펄떡거리며 뛰는 모습은 ㉤ 넉넉히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둡고 하늘이 캄캄하면 사방은 아득하기만 하다. 어촌의 등불은 가물거리는데 배의 지붕에 빗소리는 울어 느리다가 빠르다가 우수수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중략)… 여름날 뜨거운 햇빛에 더위가 쏟아질 적엔 버드나무 늘어진 낚시터에 미풍이 불고, 겨울 하늘에 눈이 날릴 때면 차가운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드리운다. 사계절이 차례로 바뀌지만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저 영달에 얽매어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유자적을 즐긴다.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부귀 보기를 뜬구름과 같이 하고 공

명을 헌신짝 벗어 버리듯하여, 스스로 세상의 물욕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⑥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두어 매양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하여 백공에게 보내고, 또한 나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 을축년 7월 어느 날.

-권근, 「여춘기」-

* 성사: 옛날 장군이 타고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는 배.

1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전원에서의 생활상이, ㉡에는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 나타난다.
- ② ㉢에는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에는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 ③ ㉡에는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에는 배의 움직임에 따른 청아한 풍경이 나타난다.
- ④ ㉡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에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나타난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7세기 가사 「월선헌십육경가」는 월선헌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 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운’에 비유해 드러냈군.
- ②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노리 허자스라’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군.
- ③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블근 게’와 살진 ‘눌은 닭’과 같이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군.
- ④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불이 불가시니’와 ‘아적 물이 미러오니’와 같은 묘사를 활용해 드러냈군.
- ⑤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랴’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13 (나)의 ‘공백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에 따른 공간의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상대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 ③ 상대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 ④ 질문에 답변하며 현실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열거하며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다.

〈보기〉 확인

〔보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붙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된 사회에 대한 작품입니다. 현대시에서 자주 출제된 주제에 해당하니, 어느 정도 수월하게 읽을 수 있겠죠? 각 지문의 주제가 명시되어 있으니 확실하게 챙겨 주고 지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김수영, 「사령(死靈)」-

〈보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활자'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언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와 같은 표현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못하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보이는 것 같네요. 딱 이 정도로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선지에서 해 주는 해석에 맡깁시다.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훈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열고.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한강물'이 얼어 있는 모습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제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묶여 있는 배들을 보며 '비웃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네요. 역시 자세한 해석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선지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합시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3% | 8% | 6% | 9% | 74% |

16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에 대한 <보기>인데, 수필의 주제를 잘 파악하면서 읽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 |
|-------------|---|
| 선지 유형 |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인식 변화가 나타난 적은 있지. |
| 해설 | ‘시간적 표현’이라고 해봤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인데, 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반응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것일 뿐, ‘인식 변화’와는 상관이 없죠. ‘인식 변화’와 같은 엄청난 반응이 제시되었다면 우리가 놓쳤을 리가 없어요.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 | |
|-------------|--|
| 선지 유형 |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경외감이 어디 있어. |
| 해설 | ‘벗’이라고 부르다가 ‘그대’라고 부르는 모습을 통해 ‘호칭 전환’을 허용할 수 있는데, ‘경외감’이요? 화자가 부르고 있는 대상은 ‘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활자’가 ‘언어’로 하여금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현실을 비판할 뿐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 정도의 강력한 반응이라면 뚜렷하게 나타났을 거예요.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 표현한다.

| | |
|-------------|--|
| 선지 유형 |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
| 해설 |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라는 표현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아마 ‘이’와 ‘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를 바탕으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나 ‘저’로 표현된 ‘황혼’, ‘돌벽’, ‘고요함’, ‘욕된 교외’ 중 그 어떤 단어에서도 ‘움직임’을 읽기는 어려우니까요. 근거가 없으면 허용할 수 없어요!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 |
|-------------|---|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
| 해설 | ‘아니냐’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한 것은 맞지만, 깨달음을 ‘부정’한다구요? 오히려 ‘나의 영은 죽어 있다’는 깨달음을 1연에 이어 한 번 더 강조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 | |
|-------------|---|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동일한 구절 있고, 부정적 정서 맞네. 거시적인 선지가 답이었네. |
| 해설 |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고, 이 말에 내포된 부정적 ‘정서’가 반복되면서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네요. 5번 선지의 경우, 기출에서 정답 선지로 정말 많이 제시된 형태의 선지입니다. 보자마자 답의 후보로 생각했어야 해요. |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3% | 67% | 18% | 7% | 5% |

1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나)의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대시가 나오는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용이 이해되게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밑줄 근처를 독해한다는 태도를 생각하면서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로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의 계기가 형성된다.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이걸로 시작하고 있으니 시상 전개의 계기라고 할 수 있지. |
| 해설 | 한강이 얼자 ‘붙들린 배’라는 구경거리에 ‘관심’을 가졌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시작하고 있으니 시상 전개의 ‘계기’라는 말도 쉽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

-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훈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건 강이 얼었다는 외부적 원인 때문이잖아. |
| 해설 | ‘아니야’가 ‘훈련받나봐’라는 말을 부정하는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 있다구요? 배는 지금 ‘한강’이 얼어서 못 움직이는 겁니다. 배의 ‘외부적’ 원인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발등’이라는 말을 보고 ‘내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처 맥락을 ‘독해’하면, 발등이 얼어버린 것 역시 강이 얼었다는 ‘외부적’ 요인 때문이니까요. |

조금 더 깊게 해석해볼까요? <보기>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회’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즉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지문의 주제가 ‘외부적 상황에 대한 비판’이므로, 어떠한 문제를 ‘내부적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제’까지 고려했다면 더욱 확신을 가지고 선지를 지울 수 있었겠네요.

-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시시덕거렸다고 하면 냉소라고 할 수 있지. |
| 해설 | ‘시시덕거렸다’라는 말 자체가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의미하고, 주변을 ‘독해’해보면 이는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보고 ‘비웃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죠? ‘비웃느라’라는 말을 통해 ‘냉소’를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는 평가원이 기출을 통해 제시한 허용 범위의 안쪽에 있습니다. 쉽게 허용할 수 있어야 해요. |

- ④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강물을 얼리는 건 외부의 힘이지. |
| 해설 | 추운 날씨 탓에 강물이 얼어 있다는 상황이 제시되었고, 그래서 강이 흐르지 못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허용 가능하네요. |

- ⑤ ㉔의 ‘팡팡팡’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㉔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얼고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팡팡팡이면 엄청 견고한 느낌이네. |
| 해설 | ‘팡팡팡’이라는 표현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상황과 ‘견고한’ 현실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 모두 허용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선택률 | 60% | 15% | 9% | 8% | 8% |

18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자유를 말하지 못해서 우스운 거잖아. |
| 해설 | <p>‘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보기>를 근거로 하면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은 맞는데, 이게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내나요? 이 말을 허용할 만한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오히려 ‘죽어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참여’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만 보입니다.</p> <p>거기에 <보기>에서도 (가)의 화자가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네요. 결국 이 선지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어설프게 끼워 맞추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이 해석을 ‘허용’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평가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아가 선지 판단의 근거는 지문만이 아니라 <보기>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p> |

-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튀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얼고.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웃음이나 몸짓이 또 다른 의사소통이라고 했네. |
| 해설 | ‘비웃는 모습’, ‘튀구는 장면’ 등이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 모색’을 드러낸다는 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문만 가지고는 이 해석을 허용하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선지 판단이 어려울 때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눈’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문만 가지고는 근거를 잡기 어려우니 <보기>를 보면, (나)의 경우 ‘웃음’(비웃음)이나 ‘몸짓’(튀굴기)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보기> 역시 선지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는 것, 확실하게 배워가도록 합시다! |

-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고요하고 숨죽이고 있다는데 의사소통 경직된 사회 맞지 뭐. |
| 해설 | ‘고요함’과 ‘숨죽이고 있는’이라는 말을 근거로 하면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사회’를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근거’를 바탕으로 ‘허용’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한정되었으니 위축, 말이 날아가지 못하니 언어 사용 제한이 허용되네. |
| 해설 | 자유를 말하는, 즉 의사소통의 장을 여는 것은 오로지 ‘활자’뿐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위축된 상황’이라는 말을 쉽게 허용할 수 있겠고, ‘말’이라는 게 ‘날아가지 못’하는 상황은 ‘말’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해석의 근거로 쓰기에 충분하겠죠. |

-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전부 주제랑 연관되는 내용들이네. |
| 해설 |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화자의 반응은 주제인 ‘의사소통의 부재’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고,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 역시 지문의 주제인 ‘의사소통의 부재’와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단어의 의미, 주제와 연결 등을 고려하면 쉽게 허용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핵심 point |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 혹은 <보기>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 ② 현대시 독해 : ‘실전’에서는 큰 틀만 잡고 읽은 뒤 선지 판단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독해를 진행하면 되지만, 실전에서 이러한 독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소 ‘사후적 독해’를 연습해두어야 합니다.

| 지문 내용 총정리 |

아무리 어려운 현대시가 나와도, <보기>를 바탕으로 주제를 잡고 독해하며 허용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문 외에 <보기>도 선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보기〉 확인

확인할 〈보기〉가 없네요. 바로 지문 읽어보도록 합시다.

지문 독해

[앞부분의 줄거리] 공동 경비 구역에서 근무하는 국군 [이수혁] 병장, [남성식] 일병(수정의 오빠)과 인민군 [오경필] 중사, [정우진] 전사 사이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소피] 소령을 파견하여 [보타] 소장 관할 아래 사건을 조사하게 한다.

인물이 정말 많습니다. '이수혁, 남성식'이 국군이고, '오경필, 정우진'이 인민군이네요. 이때 '수정'이라는 인물이 '남성식'의 여동생이라는 것까지 외울 정도로 확실하게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국군과 인민군 사이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를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서 '보타' 소장 관할 아래 '소피' 소령이 조사하게 하네요. 상황이 확실하게 그려지시죠? [앞부분의 줄거리]는 외울 기세로 꼼꼼하게 읽어달라고 했어요!

S#79. 팔각정 (낮)

팔각정에서 본 판문각 근처 부감* 전경 — 대질 심문을 받고 나온 수혁, 경필 일행이 회담장 앞에서 각각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다. 카메라, 후진하면서 팔각정 내부로 초점 이동하면 보타의 손이 쑥 들어와 서류 봉투를 내민다.

소피 : (영어) (봉투를 받아 들고) 뭐죠?

보타, 대답 대신 관측경을 들여다본다.

보타 : (영어) 한국이 처음이었지?

보타의 관측경으로, 판문각 앞에서 쌍안경을 들고 이쪽을 관찰하는 북한 군인이 보인다.

보타 : (영어) (목소리) 그래 [아버지] 나라가 마음에 들던가?

판문각 쪽에서 북한 군인의 쌍안경 시점으로, 사진을 보고 있는 소피의 모습이 잡힌다.

보타의 설명 사이사이, 한국전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생활과 좌우 투쟁, 종전 후 공산 포로 북송, 반공 포로 석방 및 제3국행 포로의 출발과 도착 장면들이 사진과 기록 영화 화면으로 편집된다.

* 부감: 카메라가 인물의 시선보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며 촬영하는 것.

공동 경비 구역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작품이 EBS 연계작품도 아니었고, 평가원 시험에 출제될 만큼 오래된 것도 아니어서 출제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걸 떠나서 평가원이 낼 수 있는 작품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선불리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맙시다. 어차피 문학 엄청 쉽잖아요.

'팔각정'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체크했던 '수혁'과 '경필' 일행이 현장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죠? 이를 비추던 카메라는 팔각정 내부로 시선을 돌리고, '보타'가 '소피'에게 서류 봉투를 내미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타'가 '소피'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소피'는 한국이 처음인데, 한국이 '아버지'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 영화 형식으로 편집되고 있어요.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소피'는 한국인 아버지를 두고 있었어요.

국문학의 경우 영화나 연극 등의 대본에 해당하니,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훨씬 생생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를 아무나 대입해서 읽다보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팔각정'에서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보타 : (영어) (목소리) 한국전 당시 거제도에는 인민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지. 그 속에서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 두 무리 간엔 치참한 살육이 계속됐어. 종전되고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 남으로의 귀순이나, 북으로의 귀환이나... 그 17만 포로 중 76명은 둘 다를 거부했어. 그들 중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있네. 바로... 자네 아버지 장연우 같은 사람이지.

소피, 놀란 얼굴로 손에 든 다른 사진을 내려다보면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 결박당한 채 쪼그리고 앉아 있다. 그중 동그라미가 쳐진 사람 얼굴로 zoom인*.

보타 : (영어) 표 장군이 매우 짹짹 움직였더군. 국방부, 외무부, 인도, 아르헨티나, 스위스 대사관... 며칠 사이 정보란 정보는 다 모았어. 표 장군으로선 전 인민군 장교의 딸인 자네에게 사건을 맡길 수 없었겠지.

소피 : (영어) (흥분해서) 3일이면 돼요. 곧 이 병장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구요.

* zoom: 피사체의 크기를 점점 확대 촬영하는 것.

‘보타’가 ‘소피’의 아버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소피의 아버지, 즉 ‘장연우’는 한국전 당시 남과 북을 모두 거부한 인민군 포로였어요. ‘소피’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왜 놀라는지는 쉽게 공감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정체를 모르다가 이렇게 들었고, 심지어 흔치 않은 사연까지 있으니 놀랄 수 밖에 없겠죠.

‘보타’는 전 인민군 장교의 딸인 ‘소피’에게 사건을 맡길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소피’는 ‘흥분’하고 있어요. 사건 해결이 코앞인데, 알지도 못했던 아버지 정체 때문에 사건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사 외 부분’에 나온 심리와 그 근거까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중략)

S#81. 소피의 숙소 (낮)

침대에 가방을 올려놓고 짐을 싸는 소피. 사진 액자를 가방에 넣으려다 말고 들여다본다. 어린 시절의 소피와 스위스인 엄마 사진. 액자 뒤를 열어 가족사진을 꺼낸다. 접힌 부분을 펴자 숨겨진 아버지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난다. 물끄러미 사진을 바라보는 소피.

(중략) 이후 ‘소피의 숙소’입니다. 가족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접힌 부분을 펼치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네요. ‘소피’는 사실 아버지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타’가 밝혀내서 놀란 것이었네요. 이렇게 잘못 이해한 내용을 바로잡고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S#82. 수사본부 (낮)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수혁, 목발을 짚었다. 사진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소피.

소피 : (수혁을 돌아보며) 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몸도 불편한데.

영문을 모르고 불러 온 수혁이 가만히 지켜보는 가운데, 탁자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들고 출입구 앞으로 가는 소피, 과녁판에서 다트 화살을 뽑아 든 다음 서류 한 장을 꽃아 고정시킨다.

소피 : 내일 자정을 기해 나를 제이에스에이 근무에서 제한한다는 명령서예요.

수혁 : 들었습니다, 아버지 얘기.

소피 : 그래, 내가 인민군 장교의 딸이란 얘길 듣고 기분이 어떻던가요?

수혁 : (주저 없이)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소피,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다가 군복 안에 받쳐 입은 터틀넥 스웨터의 목을 젖혀 보인다. 목에 나 있는 피명 자국.

소피 : 난 아직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병장은 깨끗하네요. 이 병장이 오 중사보다 힘이 센가 보지요?

당황하는 수혁, 대답 없다.

‘수사본부’에서 ‘소피’와 ‘수혁’이 만난 상황입니다. ‘소피’가 ‘수혁’을 부른 상황인데, ‘수혁’은 영문도 모르고 불러 온 상황입니다. ‘소피’는 자신이 수사에서 배제되었다는 문서를 보여 주고,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혁’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수혁’은 ‘주저 없이 친근감’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네요! 여기서 여러분은 ‘수혁’에게 공감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군인 ‘수혁’이 인민군인 ‘소피의 아버지’에게 친근감이 들었다는 것은, ‘수혁’이 인민군에게 큰 반감이 없음을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부분의 줄거리]에 나왔던 총격 사건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수혁’의 이러한 반응에 ‘당황’한 ‘소피’는 자기 목에 있는 피명 자국을 보여 주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혁’은 이를 듣고 크게 ‘당황’하네요. ‘수혁’에게 공감해보면, 무언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들킨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의 근거’를 바탕으로 공감하려는 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소피 : 자, 진짜 재미난 쇼는 이제부터예요. 잘 봐요.

수정의 얼굴이 프린트된 출력물을 과녁판에 꽂는 소피. 당황하는 수혁.

소피 : 수정 씨를 만나자마자 전에 본 적이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수정의 초상화를 과녁판에 꽂는 소피. 놀라는 수혁.

소피 : 정우진이 그린 초상화예요. 그리고 이걸 (찢어져 너덜 너덜한 얼굴 없는 사진을 과녁에 꽂으며) 정우진의 시신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과녁판에 나란히 부착된 석 장의 이미지. 충격받은 표정의 수혁.

소피 : '사라진 탄환'이 남 일병의 알리바이를 깨는 증거였다면... (얼굴이 찢겨 나간 사진을 가리키며) '사라진 얼굴'은 네 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걸 뜻하는 증거죠.

수혁, 애써 외면하고 걸어간다.

수혁 : 그래서요?

노란색과 빨간색 디스켓 두 개를 꺼내 보이는 소피.

소피 :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수사 보고서예요. 내가 뭘 제출하느냐는 이 병장한테 달렸어요. 진실을 말해 준다면 난 후임자한테 어떤 증거나 추리도 제공하지 않겠어요.

수혁 : 협박입니까?

소피 : 거래죠.

수혁 : 영창을 가든 훈장을 받든 전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의 대가로 소령님이 저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니까?

소피 : 이 병장이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오경필의 안전이에요.

-박상연 원작, 박찬욱 외 각색, 「공동 경비 구역 JSA」-

'소피'는 본격적으로 수사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정'의 얼굴을 보여 주자 '당황'하는 '수혁'입니다. '수정'은 국군인 '남성식'의 동생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확인하고 왔어야 해요! 그런데 인민군인 '정우진'이 그린 초상화에 '수정'의 얼굴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정우진'의 시신에 '수정'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들어 있구요. 국군 병사의 여동생 초상화와 사진이 인민군 병사에게서 나왔다는 건, '소피'가 말하는 것처럼 네 명의 병사가 친하게 지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소피'의 엄청난 추리력을 볼 수 있네요.

애써 담담한 척하는 '수혁'에게, '소피'는 진실을 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대가로 '오경필'의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하죠. 이제보니 [앞부분의 줄거리]에 나왔던 충격 사건은 사실 네 병사가 친하게 지냈다는 것과 관련된 사건이었나 봅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만 읽어내도 정말 훌륭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영화 참 재미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 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ㅎㅎ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선택률 | 3% | 3% | 5% | 5% | 84% |

1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 인물관계가 복잡했던 지문이니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는 '소피'와 '아버지'의 이야기, '소피'와 '수혁'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난 네 명의 병사 사이의 이야기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소피'의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자 북으로 귀환한다.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중립국을 택했지. |
| 해설 | '장연우'라는 소피의 아버지는 중립국을 택한 76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소피'가 '보타'의 말을 듣고 놀라는 장면에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잡았다면 기억에 남을 만한 정보였어요. |

② '소피'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 조사 의지가 없다.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진실 너무 궁금해하던데? |
| 해설 | 수혁에게 경필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실 조사 의지가 없다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네요. |

③ ‘수혁’은 ‘소피’의 아버지의 전력을 듣고 ‘소피’를 경계한다.

| | |
|-------------|---|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친근감이 들었다며. |
| 해설 | ‘수혁’은 ‘소피’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주저 없이’ 친근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지문에서는 지시문 같은 ‘대사 외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저 없이’라는 지시문을 보고 ‘수혁’이 진심으로 친근감이 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를 근거로 하면, ‘수혁’이 ‘소피’를 경계한다는 해석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네요. |

④ ‘소피’는 ‘사라진 얼굴’이 누구인지 짐작하지 못한다.

| | |
|-------------|--|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수정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잖아. |
| 해설 | ‘소피’는 ‘사라진 얼굴’을 바탕으로 ‘수혁’에게 협박(소피 표현대로라면 거래)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짐작하지 못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대상은 맥락을 고려했을 때 ‘수정’일 것입니다. 국군 병사의 동생인 ‘수정’의 사진이 인민군 병사에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이 친하게 지냈음을 추측한 것이죠. |

⑤ ‘소피’는 ‘수혁’이 ‘오경필’의 안전을 염려한다고 생각한다.

| | |
|-------------|---|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그러니까 오경필 안전을 불모로 잡은 거지. |
| 해설 | ‘소피’는 ‘수혁’에게 진실의 대가로 ‘오경필’의 안전을 제시합니다.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건, 상대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소피’에게 공감했다면 쉽게 지워낼 수 있네요. |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7% | 10% | 5% | 4% | 74% |

2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공간 범위는 팔각정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포함한다.

㉠ S#79. 팔각정 (낮)

팔각정에서 본 판문각 근처 부감* 전경 — 대질 심문을 받고 나온 수혁, 경필 일행이 회담장 앞에서 각각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다. 카메라, 후진하면서 팔각정 내부로 초점 이동하면 보타의 손이 쑥 들어와 서류 봉투를 내민다.

* 부감: 카메라가 인물의 시선보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며 촬영하는 것.

| | |
|-------------|---|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내부 외부 전부 나오네. |
| 해설 | 판문각 근처 ‘부감’을 근거로 하면 ‘외부’를 공간 범위로 허용할 수 있겠고, 그 밑에 ‘팔각정 내부’로 초점을 이동했다는 것을 보고 ‘내부’도 공간 범위로 허용할 수 있겠네요. |

② ㉡는 ‘소피’가 직무에서 해제되는 원인이 된다.

보타 : (영어) 표 장군이 매우 짹짹 움직였더군. 국방부, 외무부, 인도, 아르헨티나, 스위스 대사관... 며칠 사이 정보란 정보는 다 모았어. 표 장군으로선 ㉡ 전 인민군 장교의 딸인 자네에게 사건을 맡길 수 없었겠지.

| | |
|-------------|--|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이것 때문에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
| 해설 | 전 인민군 장교의 딸인 ‘소피’에게 사건을 맡길 수 없다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네요. 다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

③ ㉔는 ‘소피’가 네 병사의 관계를 짐작하게 된 단서이다.

| |
|---|
| 과녁판에 나란히 부착된 ㉔ 석 장의 이미지. 충격받은 표정의 수혁. |
| 소피 : ‘사라진 탄환’이 남 일병의 알리바이를 깨는 증거였다면... (얼굴이 찢겨 나간 사진을 가리키며) ‘사라진 얼굴’은 네 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걸 뜻하는 증거죠. |

| | |
|-------------|---|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이거 붙이고 나서 바로 관계를 짐작하고 있네. |
| 해설 | 석 장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네 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

④ ㉔는 ‘수혁’이 진실을 밝히느냐에 따라 어느 것이 제출될지가 정해질 것이다.

| |
|--|
| ㉔ 노란색과 빨간색 디스켓 두 개를 꺼내 보이는 소피. |
| 소피 :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수사 보고서예요. 내가 뭘 제출하느냐는 이 병장한테 달렸어요. 진실을 말해 준다면 난 후임자에게 어떤 증거나 추리도 제공하지 않겠어요. |

| | |
|-------------|---------------------------------------|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그렇다고 했지. |
| 해설 | 거래의 내용이죠. 지문을 이해하며 읽었다면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

⑤ ㉔는 ‘수혁’이 수사본부에 있는 ‘소피’를 만나러 온 이유이다.

| |
|---|
| 영문을 모르고 불러 온 수혁이 가만히 지켜보는 가운데, ~ |
| 수혁 : 영창을 가든 훈장을 받든 전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면 ㉔ 진실의 대가로 소령님이 저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

| | |
|-------------|---|
| 선지 유형 |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수혁은 왜 불러 온지 모르고 있었잖아. |
| 해설 | 수혁은 소피를 만나러 왔다가 진실에 대한 거래를 제안 받습니다. 진실을 말해주려고 소피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S#82을 보면 수혁은 ‘영문도 모르고’ 불러온다는 명확한 근거도 제시되어 있죠? 여기서도 ‘대사 외 부분’에 나온 ‘행동 및 심리의 근거’가 정답의 근거로 사용되었네요. |